

남구 ‘농기계 임대 사업소’ 문 연다

농림부-市-區 협업…석정동에 개소·이달 말부터 운영
트랙터 등 70여종 200대 구비…농가 소득 증대 기대

광주 남구 석정동에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들어선다.
남구는 10일 “영세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신속년 새해부터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석정동 389-4번지에 터를 잡은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최근 신축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대촌동 일

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임대 사업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새롭게 지어졌다.
남구는 이 곳 임대 사업소 개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주시와 협업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와 광주시에서 국·시비로 16억원을 지원하고, 남구청 소유 토지를 제공하는 조건

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남부 농기계 임대 사무소에는 농업용 트랙터를 비롯해 경운기, 로터리 등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70여종의 농기계 200대 정도가 구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사무실에 근무 인력을 배치해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중으로 임대 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 사무소가 개소하면 주민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어 영농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하우스 시설용 43마력 트랙터의 경우 하루 임대비용이 9만3천원, 로터리와 고구마 수확기는 각각 8천원과 1만2천원 수준에서 대여가 가능할 것

로 보인다.
농기계 임대 대상은 광주지역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 기간은 매회 신청 때마다 3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농기계에 대한 임대사용 대가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김병내 구정장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영농 기계화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농번기철 운반시간 절약과 임대 사업소 접근성 향상으로 농가수익 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서구, 공중화장실 범죄 근절
‘불법촬영감지장치’ 시범 설치

광주 서구는 공중화장실에 화장실 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감지장치를 시범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설치는 평소 이용객이 많은 상무시민공원(상무급요시장 인근), 쌍학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서구는 관내 공중화장실 55개소 전 구역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고, 비상벨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힘써왔다.
최근 아동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와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에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최명진기자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구역 최종보고회
광주 동구는 지난 8일 청사 상황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광주에 걸맞는 도심 야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 구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동명동 ‘ACC협력가게’ 200곳 돌파

동구·문화전당·동명공동상생협, 지역 상생발전 기여

광주 동구는 동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ACC협력가게’ 선정사업이 추진 1년6개월여 만에 200개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19년 6월 동명동 상생 발전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상인 모임인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처음 123개로 출발한 ACC협력가게는 현재 202개

상가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상가는 동명동 ‘ACC협력가게’로 지정되고 상가이용 고객은 문화전당 부설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문화전당 전시·공연 등 유료 프로그램에 관람한 고객이 협력가게를 이용할 때 5%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CC 협력가게에는 ‘ACC파트너스’라는 입간판이 부착돼 있으며,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상가 내부에도 안내문

을 비치하고 고객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동명동을 찾는 사람들의 보행환경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불법 주차차량량이 크게 줄었고 보행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명동 임대 상인들을 위해 문화전당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지역상생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동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ACC협력가게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는 동구청 도시재생과로 문의(062-608-2372)하면 된다.
임택 구정장은 “장기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생협약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ACC 협력가게를 확대해 동명동 등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북구, 행안부 지자체 청렴도 ‘최우수’

광주시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결과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북구는 올해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서별, 개인별로 적극적인 청렴 활동을 이행하는 등 자기진단 제도를 활성화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위 5% 이내에만 주어지는 S등급을 달성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부통제 역량을 입증했다.
한편 북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실현에 앞장서 왔다.
문인 구정장은 “공직자 부조리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광산구, 지난해 재정 확보 ‘성과’

공모 103건 선정·평가 44건 수상 등 235억 확보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부 각종 공모사업 103건 선정, 평가 44건 수상, 총 235억원 재정 확보라는 성과를 올렸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경제백신회의·자동화선별진료소·늘행복프로젝트 등 혁신 사례를 발굴해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1년 보육정책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보육 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삼호 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민간산학 협력 경제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를 운영한 공로로 광주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

게 최우수상과 1급 포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국토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에서 10억원,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서 10억원, 중기부의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서 41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재정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구정장은 “2020년 성과를 발판으로 대전환기의 시작인 올해부터는 시대의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힘을 시민과 함께 찾는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와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고훈석기자

남구, 3개팀 신설…도시재생·코로나 대응

균형발전전략·감염병대응·의정홍보팀

광주 남구가 지역균형 뉴딜사업 성공 추진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의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남구는 10일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사업 추진 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팀을 신설,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팀은 균형발전전략(기획실), 감염병대응(보건행정과), 의정홍보(의회사무과)다.
균형발전전략팀은 지역 균형발전 등 정부정책 대응 및 구정현안 추진 전담팀으로,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과 양림동 도시재생사업 등 남구청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감염병대응팀은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감염병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 전담한다.
의정홍보팀은 의회·홍보·방송·통신 업무 분리를 통한 의정홍보 기능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다.
남구는 균형발전전략팀에 2명, 의정홍보팀 1명을 각각 총원하며, 이로써 5개국 31개과 115팀, 보건소 17팀, 의회 3팀으로 각각 1팀씩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남구는 월산동과 백운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팀을 신설, 사회복지·맞춤형복지 이원화를 통한 주민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김동수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은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생로 無 감미료 산성향료